

# “U대회 성공개최 우리 힘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열공중



최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자원봉사 신청자들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기고

김운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과 친구 맺기

## 즐기며 봉사하며 세계로 시야 확장

유니버시아드는 스포츠가 추구하는 순수성, 아마추어리즘을 아직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대회로 꼽힌다. 올림픽이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국가와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으로 변모해 빛이 바랜데 반해 유니버시아드는 전세계 대학생이 참가하는 유일한 종합스포츠대회로서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의 증진이라는 본래 가치를 보존해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니버시아드의 시작은 1923년 파리에서 처음 열린 세계학생대회(World Student Games)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휴지기를 갖다가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대륙스포츠대회가 열린 것이 오늘날의 유니버시아드다.

유니버시아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해 2년에 한번씩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열린다. 올해는 동·하계 대회가 모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의 해’로, 오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제 27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리고 12월에는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가 펼쳐진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는 차기대회 개최지로 오는 7월 카잔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해 대회를 인수해 와야 한다.

대회가 인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음을 체감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고, 다음대회는 광주임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준비에 나서야 함을 뜻한다. 특히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로서 러시아 연방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카잔의 준비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1년 여름에 열린 대전유니버시아드가 2010 광주유아시안게임을 뛰어넘는 규모와 화려함으로 이목을 끌었던 것처럼 카잔도 이에 뒤지지 않는 화려하고 성대한 규모로 대회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카잔은 총 64개의 경기장 가운데 36개를 새로 짓고 선수촌, 미디어센터, 스포츠교육문화관광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시설과 인적 인프라 확충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무엇보다 대회에 투입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서 캠페인을 펼치며 카잔시민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온 점이 눈에 띈다.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유니버시아드가 세계인과 친구되어 즐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해왔고, 이를 통해 이미 2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했다. 세계에서 참가하는 선수들 또래의 젊고 발랄한 자원봉사들을 통해 세계에 러시아 카잔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오는 7월 카잔에서 대회를 인수하면 바통은 광주로 넘어온다. 광주 역시 카잔 못지 않게 자원봉사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다. 조직위원회 출범 후 제일 먼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3년째 중단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한 사례로 자부한다. 170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안내할 대회의 실질적인 주체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개최도시에 대한 인상은 좌우된다.

지난달 광주·전남북 대학, 교육청, 시·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학교가 문을 열었다. 12만명의 자원봉사자를 길러내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앞으로 2년간 자원봉사 모집과 교육을 전담, 대회 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좀 더 바라자면 카잔처럼 유니버시아드 참가자 또래의 대학생들이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스포츠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유니버시아드에서 광주 전남의 대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스포츠 리더들과 친구를 맺고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광주유니버시아드가 차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Legacy)일 것이다.

## 호남 30개 기관 자원봉사학교 개교...3800명 기본 교육

## 과기원 언어교육원 등 ‘원어민 외국어 스쿨’ 4년째 운영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자원봉사에 참여할 시민들이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18세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주말에도 자원봉사학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자원봉사학교’가 광주에 물고 온 새 바람이다.

8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과 5일엔 광주지역 5개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신청자 중 100여 명이 모여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엔 주말임에도 각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630 명이 몰려 교육을 받았다. 수강생들은 주말나들이마저 포기하고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을 찾아

광주U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U대회 자원봉사학교’는 대회 성공의 열쇠이자 게임 메이커(Game Maker)이 기도 한 자원봉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대시민 교육 프로젝트다.

교육과정은 기본·직무·심화·사이버·현장 교육 등 5단계로 진행되며, 광주U대회 조직위와 광주·전남·전북 23개 대학 그리고 시·구 자원봉사센터 등 30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28일 개교한 자원봉사학교는 지금까지 접수된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기본교육을 진행중이며 현재 기본교육 이수자는 총 3800여 명에 이른다.

기본교육을 마친 한 시민은 “자원봉사학교에

서 익힌 지식과 국제 감각을 2015년 경기장에서 꼭 활용하고 싶다.”라면서 “대회 개최도시 시민으로서 우리 고향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고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기본교육과 함께 광주U대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육성 프로그램인 ‘유니버시아드 외국어 스쿨’도 올 상반기 수업이 진행중이다. 상반기 외국어 스쿨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5개 과정 60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광주과학기술원 언어교육원 등 11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역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원어민 회화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외국어 스쿨 강좌’는 광주U대회 조직위가 지난 2010년부터 4년째 운영중이며, 지금까지 다른 도시의 어떤 대회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

## 의무·경호·간호분야 원하는 시간 방문 교육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자원봉사학교’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맞춤형 자원봉사학교는 광주U대회 조직위가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신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직위는 지난해 말부터 의무소방대와 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태권도 경호회, 항공스튜어디스학과, 간호학과 등을 방문, 2015광주U대회 자원봉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조직위가 이처럼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은 의무, 경호, 소방, 의전 등 대회 운영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들어 조직위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 5일엔 조선대 영문학과 학생 31명이 학교 강당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았다.

또 오는 13일엔 조선대학교 일본어학과와 중국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등 6개 외국어 관련학과 학생 200여 명이 학교 강당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각 대학 특성과 학과와 구청 의용소방대 등을 찾아다니며 자원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014년 말까지 맞춤형 자원봉사학교를 운영, 전문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 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SKC교육원에서 열린 ‘자원봉사교육 강사 워크숍’에서, 1단계인 기본교육에 이어 2단계인 직무분야 교육에 참여할 강사들이 자원봉사 신청자들에게 시연할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